



## “빅리거 마인드·실력 모두 흡수해 오겠다”

이범호, 다음달부터 10월까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코치 연수 루키리그 타격·수비 지도...“마음을 잡는 지도자로 돌아올 것”

“마음을 잡기 위해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우고 오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에서 활약했던 이범호가 지도자 연수를 위해 미국 메이저리그로 떠난다.

이범호는 KIA 구단의 지원으로 오는 2월 11일부터 10월까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코치 연수를 받는다.

오는 30일 KIA 스프링캠프 참가 선수단과 함께 출국길에 오르는 이범호는 이후 플로리다주 클리어워터에 위치한 필라델피아의 스프링캠프로 이동, 코치 연수를 시작하게 된다.

이범호는 올 시즌 클리어워터에 머물며 필라델

피아 루키리그 선수들의 타격과 수비 전반을 지도하게 된다.

“가족도 함께 가기로 했다. 최근에 비자 발급 문제도 비뚤었다. 이제 집만 쓰면 된다”며 웃은 이범호는 “야구의 본고장 미국에서 선진 야구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KIA 구단에 감사하다”고 연수를 앞둔 소감을 밝혔다.

이범호는 “마음을 잡는 지도자”를 목표로 많이 배우고, 느끼고 오겠다는 각오다. 앞서 이범호는 지난해 9-10월 일본 프로야구(NPB) 소프트뱅크 호크스 추계 캠프에서 지도자 연수를 했다. 당시에도 이범호는 ‘마음’에 집중했다.

이범호는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야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 야구를 왜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선수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을 봤다”고 이야기했다.

낮선 미국에서도 이범호는 선수들의 마음을 읽고, 끄는 법에 집중할 생각이다.

이범호는 “긴장도 되고 궁금하다. 빨리 선수들을 접해보고 싶다. 어떤 마인드로 야구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실력들이 있고 그 실력을 어떻게 펼치는지 등을 주시하다 보면 나중에 지도자로서 많은 것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미국, 일본 야구하는 것을 다 본 만큼 돌아와서 우리 KIA 선수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가 하는 말을 선수들이 신뢰하고 ‘한번 해

보자’ 하면 믿고 따라주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이범호는 영어 단어 공부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평소에도 외국인 선수들과 스스럼없이 소통 할 정도다.

이범호는 “처음에는 통역의 도움을 받았지만 콩글리시로 부딪히면서 할 생각이야”며 “구단에서 전폭적인 도움을 주신 만큼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 잘 배우고 와야 한다. 가서 타격과 수비 전반을 맡겠지만 딱히 뭐를 신경쓰기 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보여줄 수 있는 것 보여주고, 반대로도 많이 배우고 오겠다.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 만큼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흡수해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박인비, 물에 빠진 통산 20승

LPGA 시즌 개막전 준우승...공동 1위서 연장전 티샷 실수

박인비(32)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0시즌 개막전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총상금 120만달러) 준우승을 차지했다.

박인비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의 포시즌 골프 앤 스포츠 클럽 올랜드(파71·664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보기 2개를 묶어 이븐파 71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71타의 성적을 낸 박인비는 하타오카 나사(일본), 가비 로페스(멕시코)와 동률을 이뤘으나 197야드 18번 홀(파3)에서 진행된 연장전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1, 2차 연장에서 세 명 모두 파를 기록했고 3차 연장에서 박인비의 티샷이 그린 왼쪽 물에 빠지면서 박인비가 먼저 탈락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했다면 2003년 박세리(25승·은퇴)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LPGA 투어 20승 고지에 오를 수 있었던 박인비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박인비로서는 아쉬운 18번 홀이 됐다.

이번 대회 1, 2라운드를 모두 보기 없이 마친 박인비는 3라운드 18번 홀에서 첫 보기를 적어냈다. 그 바람에 3라운드까지 2위였던 김세영(27)과 격차가 3타에서 2타로 좁혀진 가운데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다.

2타 차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박인비는 2, 3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적어내며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8번 홀(파4)에서 약 6m 중거리 버디 파트를 넣고 반전에 나선 박인비는 하타오카에게 1타 뒤진 상황이었던 16번 홀(파4)에서도 중거리 파



트로 한 타를 더 줄여 공동 선두에 합류했다. 연장전이 열린 18번 홀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까다로운 홀이었다.

1, 3라운드에서는 출전 선수 26명 가운데 한 명도 버디를 잡지 못했고 2라운드 4명, 4라운드 1명만이 버디를 기록했다. 4라운드 버디의 주인공은 바로 로페스였다. 로페스는 마지막 홀에서 극적인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가 됐다. 이번 대회 첫 보기와 연장전 티샷 실수가 모두 18번 홀에서 나왔다. 박인비는 이로써 3라운드까지 단독 또는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들어간 19차례 대회에서 11번 우승, 승률 57.9%를 기록했고 LPGA 투어에서 연장전 통산 전적은 3승 5패가 됐다. /연합뉴스

## 임성재, 경자년 ‘순항’

PGA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공동 10위...시즌 세 번째 ‘톱10’

임성재(22)가 새해 들어 두 번째 출전 대회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는 20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 웨스트 스타디움 코스(파72)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쳤다.

4라운드 합계 18언더파 270타를 적어낸 임성재는 공동 10위로 대회를 마쳤다.

작년에 시작한 2019-2020년 시즌에 이미 두차례 톱10에 입성한 임성재는 이번에 시즌 세 번째 톱10 진입이다.

올해 처음 출전했던 소니오픈에서 마지막 날 병커에 발목을 잡혔던 임성재는 이번에도 최종 라운드에서 병커의 뒷에 걸려 아찔한 순간을 맞았다.

임성재는 12번 홀에서 병커샷만 3번을 했다.

티샷한 불이 페어웨이 병커에 빠졌고, 두 번째 샷은 그린 뒤 병커에 떨어졌다. 병커에서 빼낸 볼은 그린 앞 병커까지 날아갔다.

4번 만에 그린에 볼을 올린 임성재 퍼트 두 번으로 2타를 잃었다.

그러나 임성재는 이어진 13번(파3), 14번 홀(파4)에서 내리 버디를 잡아내 잃은 타수를 급세 만회하는 회복력을 과시했다.

임성재는 17번홀(파3)에서 티샷을 홀 2m 앞에 떨어뜨려 1타를 줄여 10위 이내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이번 8번이나 그린을 놓치는 등 샷이 썩 좋지 않았던 임성재는 10번의 버디 기회에서 7번을 성공하는 컴퓨터 퍼트가 돋보였다.

2018년 발레로 텍사스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뒀던 앤드루 랜드리(미국)는 5타를 줄인 끝에 26언더파 262타로 우승, 통산 2승 고지에 올랐다.

에이브러햄 앤서(멕시코)는 9언더파 63타를 몰아치며 추격했지만 2타차 2위에 머물렀다.

이경훈(29)은 4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21위(15언더파 273타)에 올랐다. /연합뉴스

## 김학범호, 올림픽 본선 진출 ‘-1승’

U-23 축구 내일밤 호주와 4강전

역대 전적 10승 2무 2패로 우위

‘4전 전승’ 조별리그 성적도 앞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목표를 향해 순항하는 김학범호가 ‘도쿄행 직행 티켓’에 단 1승만을 남겨놓고 ‘해볼 만한 상대’인 호주와 맞붙는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후 10시 15분 호주와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준결승 대결을 벌인다.

이번 대회는 2020 도쿄올림픽 남자축구 본선 진출권이 걸려있다. 도쿄올림픽에서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은 총 4장으로 개최국 일본이 이미 1장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번 대회 3위까지 올림픽 출전권을 얻는다.

이에 따라 한국-호주, 우즈베키스탄-사우디아라비아의 4강 대진에서 승리하는 팀이 결승전 결과와 상관없이 올림픽 진출권을 따내고, 나머지 1장의 주인공은 준결승전 패자끼리 싸우는 3-4위전에서 결정 난다.

김학범호는 호주만 꺾으면 올림픽 본선 진출에 성공하게 돼 비장한 각오로 준결승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호주와 U-23 대표팀 간 역대 전적에서 10승 2무 2패로 크게 앞서 있다. 최근 4경기에서는 3승 1무를 거두고 있다. 2014년 11월 U-21 중국 4개국 친선대회에서 0-1로 진 게 마지막 패배였을 정도로 앞서 있다.

이번 대회 객관적 전력으로도 호주에 앞서고 있다.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1-0승·2-1승·2-1승)와 8강전(2-1승)을 치르면서 4경기에서 7골(3실점)을 뽑아냈다. 반면 호주는 조별리그 3경기(1-1무·2-1승·1-1무)와 8강전(1-0 연장승)까지 5골(3실점)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한국은 4연승으로 준결승에 오르며 ‘전승 우승’을 노리는 가운데 호주는 2승 2무를 거둬 객관적인 전력에서 김학범호가 앞선다는 평가다.

한국은 8강전까지 이동준(부산), 오세훈(상주), 조규성(안양·이상 2골), 이동경(울산·1골)이 득점포를 가동했다. 멀티골 기록자만 3명이다.

호주는 23명의 엔트리 가운데 9명이 유럽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 위주로 득점에 성공했다.

스트라이커인 니컬러스 디아고스티노(퍼스 글로리)가 유일하게 멀티골(2골)을 기록한 가운데 알 하산 투레(아들레이드), 레노 피스코프(웰링턴 피닉스), 레미 나자린(멜버른 시타·이상 1골)이 득점에 성공했다.

김학범호가 4-2-3-1 전술을 위주로 경기를 치르는 가운데 호주는 4-3-3 전술과 4-2-3-1 전술은 물론 4-4-2 전술까지 다양하게

가동해왔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현지시간) 태국 랑싯 탐파삿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한국과 요르단의 8강전. /연합뉴스